

[나와 《길림신문》]

◎ 최진옥

나에게 신심과 용기, 글 쓰는 재미를 준 신문

나는 단위에 출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림신문》을 접하게 되었다. 1995년, 단위의 추천으로 연변 일보사에서 꾸리는 통신원 강습반에 참가하여 강습을 받은 후 나는 좋은 일, 낯은일을 막론하고 보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정성 들여 글을 써서 《연변일보》에 투고하였다. 그때 《길림신문》을 매기마다 접하면서도 투고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투고할 욕심은 굴뚝같았지만 나같이 이름 없는 통신원의 글을 누가 쳐다보거나 할까 하는 위구심에 늘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2005년, 소식 한편을 쓰고 나서 용기를 내어 《길림신문》에 투고하였다. 신문에 발표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사실에 부합되고 사회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표될 수도 있겠다는 한가닥 희망을 품었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로 신문에 또렷하게 한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로부터 은근히 신심이 생겼다. 나는 여가시간을 타서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글로 써서 투고하기 시작하였다. 언어를 내 수준에 맞추어 정성껏 다듬고 이 글이 사회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후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글을 위주로 투고하였다.

그중 2012년 9월에 발표된 <물길을 빼고 눈을 만들던 나날에>, 2014년 8월에 발표된 <역사의 견증물을 찾아서>, 2014년 10월에 발표된 <‘두만강 일변지’ 원봉수로를 가보다> 등 글들이 발표된 후 사회적 반향이 좋았다. 그 시기를 살아왔던 로선배들이 그때의 일들을 꾸밈없이 그대로 잘 반영하여 감동을 받았으면서 전화를 걸어오거나 길에서 만나면 뜨겁게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 격려들이 아마도 힘든 하향길에서도 글감을 찾아내고 글감이 있으면 밤잠을 설치면서도 글쓰기에 집념하도록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 같다.

2006년부터는 길림신문사에서 조직하는 공모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인성교육상’ 공모, ‘내 가족 자랑’ 공모, ‘내가 보는 개혁개방 30년’ 공모, ‘고운 남자 미운 남자’ 공모, ‘기억 속의 60년 세월’ 공모, ‘아름다운 추억’ 공모 등 여러가지 공모활동이 나의 구미를 부쩍 당겼다.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을 글로 써서 투고하였다. 수상을 바라기보다는 한편 한편의 글들을 통하여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고하였다. 수상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테고...

내 진심이 통했는지 생각 밖으로



▲ 저자 최진옥

2008년에 <정답게 울려오는 전화벨소리>가 ‘이래컵-내가 보는 개혁개방 30년’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 뒤로 <사랑으로 말아온 전락생>이 2008년 <길림신문> 인성교육상 학부모 동상에 입선되고 2012년에는 <야, 훌륭한 변호사로 자라나거라>가 제6회 <길림신문> 인성문화재단컵 인성교육공모에서 부모부문 은상에 입선되었다. 2011년에는 ‘고운 남자 미운 남자’ 공모에서 <당신을 만나 인생을 배웠습니다>가 ‘설월산집’ 금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돌에도 무늬가 있습니다>가 제1회 ‘아름다운 추억’ 수기 공모에서 가작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애타게

찾아낸 증거>가 제2회 ‘아름다운 추억’ 수기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울림이게 한 것은 수필 <저 강둑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가 《길림신문》 제3회 ‘두만강’문학상 ‘청산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선생님의 글 <애타게 찾아낸 증거>가 《길림신문》 제2회 ‘아름다운 추억’ 수기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2월, 길림신문사 ‘아름다운 추억’ 수기 공모 편집을 맡았던 김장현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전에서 울리고 있다. 하향길에서 접했던 수상 소식에 너무도 뜻밖이라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했던 것 같다.

나는 《길림신문》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글 쓰는 재미를 느끼게 한 신문이어서 항상 고맙고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실렸나 싶어 은근히 마음이 쏠리는 신문이다. 출근할 때는 《길림신문》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도 틈을 타서 읽어보는 것이 하루 출근시간의 한자리를 차지하였던면 퇴직한 후로는 인터넷을 열고 처음으로 펼쳐보는 화면으로 《길림신문》이 자리매김되었다.

《길림신문》의 40돌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꾸준한 변형창성하기를 기대한다.

전망대

운이 좋은 연변팀 첫 원정승을 노려라!



제20라운드 대령군성팀과 연변팀간의 경기 한 장면

원정에서 대령군성과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광주표범이 광서평과에 지고 석가장공부가 소주동오에 비기면서 여전히 3위를 지킨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이 8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심수시통화문체중심에서 심수청년인팀 (이하 ‘심수팀’)과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1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홈장에서 광주표범, 석가장공부 등 강팀들을 이기고 원정에서도 청도홍사를 2:0으로 제압했던 심수팀은 지난 15라운드까지 7위를 차지하면서 강팀으로 군림했다. 그런데 최근 5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13위로 추락했는데 8 경기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7월 12일에 있는 불산남사와의 원정경기에서 실력이 엇비슷한 불산남사에 2골을 먼저 내주고 한골을 만회하였다. 7월 21일에 있는 상해가정회공과의 홈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내주고 추격하여 동점골을 뽑았으나 후반전에 또 한골을 허락하였다. 7월 26일에 있는 중경동량통과의 원정경기에서도 후반전에 선제골을 내주고 동점골을 뽑았지만 역시 추가시간 7분 만에 결정골을 내주면서 패하였다. 8월 2일에 있는 광서평과와의 원정경기에서는 9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더니 45분에 동점골을, 64분에 추가골까지 뽑으면서 역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귀신에게 홀린 듯 경기 추가

시간에 연속 2골을 내주면서 패하였다. 8월 9일에 있는 료녕철인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6분에 자책골을 선사하고 10분에 동점골을 뽑으면서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4분에 음분자에게 추가골을 내주고 다시 72분경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경기 추가시간에 한골 내주면서 패하였다.

다섯 경기 모두 선제골을 내주고 비길 수 있는 실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패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비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격선의 칼날이 무디다는 등 말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든다. 38번 노벨(9골), 17번 호명(3골)이나 18 경기기를 소화하고 3골을 기록한 19세 황개준(45분) 등으로 구성된 공격선은 알볼 수 없는 실력을 과시하고 14번 황가준, 33번 전일범, 4번 고강호, 25번 고가량 등이 지키는 수비선도 너무 허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여튼 5연패를 당하고 신심과 자존심이 많이 상한 심수팀을 상대로 연변팀은 원정승을 노릴 필요가 있다. 자기의 끝문을 사수하는 전제하에서 우카추쿠와 포부스가 앞에서 엄호하고 왕자호, 김태연, 리세빈, 왕성래 등이 매복습격에 가담한다면 선제골을 뽑을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리는 심중팔구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 김태국기자

미니영화 《엄마의 눈물》 시영식 연길서



8월 13일,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 협회가 ‘8.15’ 로인절을 맞으면서 촬영 제작한 미니영화 《엄마의 눈물》 시영식이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있었다. 김련심이 극본을 쓰고 손룡호가 감독을 맡은 미니영화 《엄마의 눈물》은

한 가정에서 부모의 유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제분규를 현실적으로 그려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엄마의 눈물》은 감작스러운 어머니의 병간호와 아버지의 비상금 상속 문제를 계기로 표면화된 삼남매 (특

히 오빠와 순금)의 리기심과 갈등, 그리고 순애의 헌신과 손녀 려화의 순수한 효심이 대비되는 가족 영화로 가족간의 사랑과 이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야기이다.

발표회에서 극본 작가이며 변호사

인 김련심은 “오늘날 부모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정에서 경제분규가 많이 일어난다. 돈 앞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려 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그냥 일어나도록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필을 들어 극본을 썼다.”고 창작 의도를 밝혔다. 또한 “중화민족 5천년의 아름다운 룬리도덕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룬리도덕 의식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으로 량호한 도덕문화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었다.”고 속심을 털어놓았다.

엄마의 속은 아주 깊어 알기 힘들다. 그러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희생한다. 손룡호 감독은 “엄마가 흘리는 눈물은 돈을 더 챙기겠다고 악을 쓰고 몰러서지 않고 양보할 줄 모르는 자식들의 안타까운 소행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금전만능, 개인리익을 첫째로 삼는 착오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신랄한 규탄이다.”라고 이번 작품의 주제사상에 대해 강조했다.

/ 김파기자



변경지역 청소년들의 과학꿈에 날개 달아준 동아리

산동대학 학생 ‘추응점의 (雒鷹添翼)’ 공익교육 동아리가 8월 11일 연길시 소년궁에서 ‘지혜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과학보급 행사를 진행했다. 동아리 팀원들은 ‘J-15’ 합제전투기를 소재로 리론 강의와 모형 제작을 결합한 국방과학교육 수업, ‘지혜로운 칠교판’ 창의력 수업을 통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을 통한 능동적 탐구에 초점을 맞춘 두가지 특색 과목을 선보였다. 이번 활동은 2025년 ‘전국 과학보급의 달’을 맞



아 변경지역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与人为善 一路吉祥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图说 我们的价值观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